

‘화촉동방’의 즐거움도 한낱 꿈일지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③ 불보살의 시험을 받는 삼장법사 일행

유사하라는 큰 난관 무사히 건너 삼총사 호위 속에 인도로 가는 길. 쉬운 길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큰 난관 없이 나간다. 꽃피고 새우는 봄 지나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소슬한 가을바람 불어오는 계절. 지친 이들의 발길 잡아끄는 아름다운 장원이 있다. 쉬어가기로 정하는 일행 앞에 눈이 흰하게 밝아오는 아름다운, 아름답기만 한가? 요염하기도 한 부인 나와 맞는다. 알고 보니 과부 맥이라네.

부인 성은 가(賈)씨에 죽은 남편의 성은 막(莫)씨라나? 세 딸까지 소개를 하는데 어머니 뺨치게 아름답고 또 요염하여라.

현장법사는 거북해하면서도 의연하고 손오공은 이미 이 집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 챈다. 어떤 보살님이 장난을 치시는가?

사오정은 그런대로 무덤덤한데 저팔계 벌써 눈이 돌아간다. 낯이 반은 나갔다. 입가에 침도 흐른다. 거기에 결점타가 날아온다.

마침 숫자도 딱 맞으니 스님들 인도하시는 거 그만두시고 우리와 짝짓기 하고 여기서 사시지요! 스님노릇 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나요? 속세의 재미를 아시나요?

사시사철 모든 것들 마음대로 즐기고 언제나 진수성찬 차려 먹으며 비단 이부자리에 화촉 밝힌 밤이며 뼈가 노글노글해지는 그 즐거움. 스님노릇 하며 아마타불 부르는 것보다야 백배 낫지요.

현장법사는 참으로 의연하여라. 꾸짖듯이 대답을 한다.

출가의 삶은 속세의 삶과 비길 수 없는 좋은 점이 있다. 수행의 공을 이루어 도솔천에 들어가고 본성을 깨닫고 마음을 밝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니 집에서 누린내 비린내 나는 고기나 탐하고 희망 없이 꼬글꼬글 늙어가는 속세의 삶보다는 백배 낫다.

부인 크게 화를 낸다.

모처럼 대접을 잘해줬더니 이런 말로 심사를 굶다니! 당신이 싫다면 세 제자를 가운데 하나라도 내 딸과 짝지어 데릴사위로 들어와요!

삼장법사 기세가 꺾여 세 제자에게 차례로 묻는다.

네가 데릴사위 할래? 손오공은 이미 눈치를 찻고 저팔계는 맘은 있어도 체면이 있어 대답을 못하고 사오정은 우직하여 고개를 도리도리.

부인은 짜증스럽게 어느 누구든 결정되면 말하라 문 닫아 걸고 들어간다.

저팔계 은근히 충동질을 한다. 이리다 우리 대접도 못 받고 찬 이슬 맞고 자겠소. 무슨 수를 냅시다.

모두들 시큰둥하니 저팔계 애가 났다. 말 먹이겠다고 슬그머니 나가 집안으로 들어가 부인을 만나 말을 맞춘다.

어머님, 어머님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세 딸 가운데 하나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데릴사위 하오리다. 그런데 요건 몰랐지?

손오공이 슬범으로 미행을 하여 현장을 다 봤다.

결국 도망갈 구석, 변명할 말도 없어진 저팔계. 그 집 데릴사위로 들어가기로 하고 쇠뿔도 단검에 빼어라? 그날로 혼례를 치른다.

그런데 어느 딸과 결혼을 할래? 세 딸 다 주면 안 될까요?

예기! 욕심도 많다. 그래서 배필 정하기 방법을 이리저리 강구한다. 그런데...저팔계 눈 가리고 세 딸 가운데 하나 잡기를 해도 안 잡혀 그럼 어머님과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했다 꾸지람만 들어.

결국 세 딸의 속옷 가운데 하나를 골라잡으면 그 딸로 정하기로 한다. 세 딸 속옷 모두 입을 수 있으면 셋 다 달라면서 그 작은 여자 속옷 어찌 짜 꿰입는 순간 속옷은 밧줄이 되어 저팔계를 톱 톱 묶어 매달고 모든 여인들 자취가 없어진다.

그리 하룻밤을 지나고 보니 고루 거각 집들은 다 어디가고 현장법사 일행 숲 속에 누워있었구나. 오래된 잣나무에 종잇조각 걸려 있네.

여산노모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함께하여 현장법사 일행을 시험하는 무대를 꾸미셨나?

“다른 이는 모르겠으나 저팔계는 너무 속세에 얽힘 많으니 크게 반성하여야 하리로다!”

깊은 숲속에 매달려 절규하는 저팔계 구해 내었네. 불쌍한 저팔계... 한바탕 꿈이로구나!

남가일몽이 바로 이것이런가? 화촉동방의 꿈은 어디로 가고 부끄러움만 잔뜩 짙어졌구나~~

이야기 소개가 좀 길죠? 짧이지 않고 이야기 전개를 알 만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줄거리에 관한 이야기는 짧고 그 속에 숨은 이야기, 그걸 발미로 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보살들이 현장법사 일행을 시험하는 이야기이군요. 거기에 여산노모(彌山老母)라는 여(女)신선까지 가담을 하구요. 아마도 어머니 역할은 여산노모가 맡고, 세 딸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각각 분장하고 나온 듯? 아무튼 그 부인의 성씨와 남편의 성씨 자체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네요. 부인의 성인 가(賈)는 거짓이란 가(假)와 음이 같고, 죽은 남편의 성인 막(莫)은 없다는 뜻이니, 모두 여색의 거짓되고 공허함을 비유하며, 또한 이 집과 네 여인이 참된 존재 아니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군요. 이런 집에 들어가면서 손오공만은 벌써 눈치를 찻니다. 어떤 보살님들이 장난은 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리 드러내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하지요. 결국 현장법사 일행이 보살의 시험에 들게 되



그림·최주현

저팔계, 보살의 유혹에 넘어가 현장 스님 수행정신과 대비 재가자가 출가자의 삶 지켜줘야

는 것인데... 참으로 시험이란 괴로운 것이지요?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잘 아시는 종교의 성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하는 유명한 기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험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마지막 시험이었던 운전면허 시험도 정말 싫었거든요. 영? 이런 의미의 시험이 아닌가요?

예고 잘못 나왔습니다. 본줄기로 돌아와서... 결국 저팔계만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네요. 현장법사는 신통력 같은 것은 없지만 굳은 의지와 신앙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거든요. 제가 서유기를 읽으면서 내내 감탄하는 것은 바로 현장법사의 굳건한 마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길, 그 참된 구도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굳건함이야말로 현장법사라는 캐릭터가 가진 특성이지요. 그러기에 재주가 없으면서도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세 제자들의 스승이 되며, 인도로 가는 여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겠지요. 불퇴전의 서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이런 현장법사와 과부댁의 말씨름은 음미할 만 하네요. 각각 세속의 즐거움과 출가의 공덕을 말하고 있지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갑자기 출가 사문과 농사의 일을 연관 지은 경전이 떠오르네요.

부처님은 어느 날 경전(耕田)이라 하는 바라문 집에 탁발을 갔다 하지요. 그 바라문이 부처님께 말합니다. “사문이며, 나는 밭을 갈고 종자를 뿌리고 밥을 먹소, 사문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 밥을 드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밥을 먹소.”

“소도 없고 쟁기도 없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종자이고 계(戒)는 비며, 지혜는 쟁기고 정념은 보습이며, 정진은 나의 소(牛)니 나를 열반으로 이끈다. 나는 이렇게 하여 밭을 가니 감로(甘露)는 그 과실이다.”

참으로 감동을 주는 경전의 말씀입니다. 서유기의 이야기와는 다른 각도지만, 불교의 수행은 그 도착점이 괴로움이 없는 열반입니다. 감로가 그 과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찌 세속적 쾌락과 비교하겠습니까? 부인이 맛있는 음식과 화촉동방의 쾌락을 말했지만, 현장법사는 그것의 무상함을 설하고, 그 무상한 쾌락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결과로 이끄는 출가수행의 공덕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선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앞의 경전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출가인의 농사를 이야기했고 그 빼어난 공덕을 말했지만, 결국 그것이 일반적인 노동생산의 가치를 갈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가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생계를 위한 노동의 시간도 아껴서 수행에 힘쓰기 위해서이지 노동을 갈보아서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은 재가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힘을 수행에 쏟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출가와 재가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분업을 이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출가수행을 하면 어찌 될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류 멸종입니다! 성생활을 철저히 금하니 당연히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청정한 생활을 하면 그 공덕으로 아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지듯 생겨날까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군요. 성생활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겠지요. 그

러니까 출가자들의 삶을 재가자들이 책임지며, 출가자들은 모든 삶의 원동력을 수행에만 쏟아 붓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진 이상적인 분업구조라는 것이지요.

출가와 재가라는 것을 식막한 분업구조로 설명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바로 보입니다. 그런 시각을 배제하고 나면 출가자는 무조건 수승하고, 무조건 높고... 재가자는 불교의 이등시민이라는 소외의식이 생깁니다. 재가자는 열등한 존재이니 이번 생에서는 참아가면서 생산 노동에 힘쓰고, 오욕락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공덕으로 다음 생에 출가하여 수행하여 불도를 닦으리라! 앞에서 제가 힘주어 비판했던 삶과 동떨어진 불교, 우리의 삶의 장을 배제하는 불교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가자는 재가자답게,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이런 원칙 아래에서 삶과 수행의 방식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출, 재가를 분업구조로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출가자에 대한 존경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가자가 낼 수 없는 큰 뜻을 품고, 모든 즐거움을 배제한 채, 모든 힘을 수행에 쏟기로 결단한 그 분들을 존경하고 받들지 않는다면 누굴 존경하고 받들단 말입니까? 유마경을 보세요. 유마거사가 스님들에게 취하는 태도를 보세요. 우선 밭에 절하는 극진한 공경의 예를 갖추십니다. 출가자에 대한 극진한 공경을 가르침을 받는 재가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거든요.

혹시 스님들이 이 글 읽고 싫어하실까봐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고요? 예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스님들 보면 무조건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불공경을 혼동하지 마세요!

2016 새해새날 자비망명 온 누리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청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종도모집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